

김 희 걸 / 한국산업간호협회 경기지부장, 경원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권과 통상조약을 맺으며 개화바람이 불던 ... 아마도 선교사업이 자유화되어 인정되어가던 즈음)에 거쳐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많은 공헌과 보건의료계의 정책, 보건의료제도 정착에 영향을 행사해 오고 있는 유서 깊은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가장 큰 모임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로 세계보건의료계를 선도해 온 단체인 것이다.

2004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보건협회에서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라는 주제로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에서 제13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로서 미국내에서도 권위있고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회이다.

놀라지 마시실... 미국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는 125년(이 때라면 1880년대로 우리나라는 청나라, 미국,

내가 참석한 132회 학술대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진행되던 5일간 발표된 논문편수만도 1,000편이 넘어서 그 규모와 대회진행과 관련된 수준이 나를 압도하였다. 국제대회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세계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몰려들다니. 무엇보다도 주제 강연이나 논문발표를 학회에 꽃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생각을 무너뜨려주는 것이 이 기간 중 Business Meeting이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었다. 이슈와 관련된 각 위원회들의 회합이 대회 한편에

서 열리고, 아마도 이 회합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찾아온 회원들도 굉장히 많은 듯 했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분야에서는 일요일(대회 이튿날) 중식시간을 이용해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ubcommittee Meeting을 선두로 진행되더니, 저녁시간(6:30 pm- 8:00 pm)마다 관련 회합이 이뤄졌다. 통재라!! 이런 모임들이 평소 자신들이 관심을 갖던 지인들 간의 회합이어서 나와 같은 초짜 회원은 초대도 못 받았다는 것, 다음에는 미리 신청해 놓아야지 다짐만 하고...

특히 참여를 못하는 더 많은 회원들을 위해 E-ssential Learning과 회원간의 i-Communicate 배려는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고, --미운 점, 대회 월요일 디너만찬에서 각 대학별 동문의 만남을 주최 측에서 열어주는 관행이 있어 미국내 동문들이 이날 대거 참여하여 힘을 과시하더라는. 우리에게 참가비 엄청나게 받아, 도시락 한 끼 안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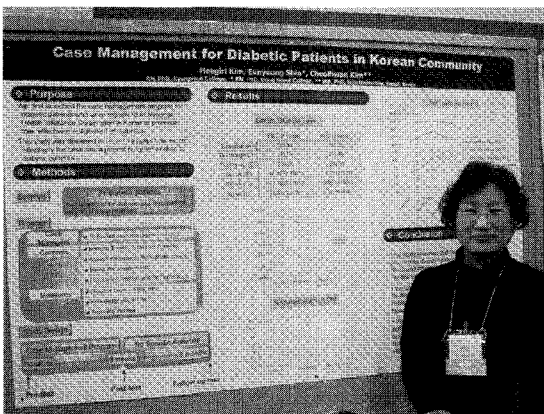
내가 관심을 갖고 참석한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Program & Research에서는 '산업재해나 손상을 입은 근로자들의 직업복귀', '재활'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어린 근로자, 여성, 노인 등(지난번 미국

산업전문간호사 시험준비하던 교재에서 그렇게 여러 번 출현하더니만)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연구기금에서 후원되고 있었다. 이 발표장은 연일 만원을 이뤄 카펫에 앉아서 듣는 청중들로 통로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산업보건은 인기분야(?)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면서 효과평가로 연구된 'Case management for diabetic patients in Korean community' 평 논문을 가지고 팀원인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교수, 동서울대학 실버복지학과 신은영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된 덕분인데 정작 난 매일 다른 발표장에만 들락거린 셈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린 덕에 이 대회에 참석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중 미국에서 학위과정에 있는 후배들의 만남은 더욱 정겨웠고, 미국대학에 대한 정보도 얻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후배들이 이 대회가 미국 전역의 유명대학들의 리쿠르트 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 대학들이 장학금제도 등 대학홍보로 열기를 채웠는데 아마도 최근 줄어들고 있는 석·박사 연구생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인 듯했다. 넓은 부스센터에 상품홍보보다는 하버드, 존홉킨스, 미시간 등등 유명대학들의 좌판(?)이 더 많았음에라...

글 꼬리. 미국까지 날라가서 벳을 안 만날 수 있으리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남편이랑 연구교수로 가있는 전경자교수(전 산업간호학회 회장)부부를 방문한 것도 이번 여행의 백미인





**정보. 2005년 APHA 학술대회일정:**

Meeting theme :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이며 APHA 133rd Annual Meeting & Exposition New Orleans, LA Ernest N. Morial Convention Center November 5-9, 2005

것을. 그날 보스턴에는 눈이 어찌나 왔는지 하얗게 채색된 하버드교정은 어찌나 멋진지... 우리 큰아들이 광분해 하던 보스턴 '레드 삭스 (Red Sox)' 팀의 우승기념 티셔츠- 정말 달랑 빨강야구양말 한 켤레가 그려진-를 사들고 돌아온. 이번 미국여행은 다채로운 경험을 내게 안겨주었다.